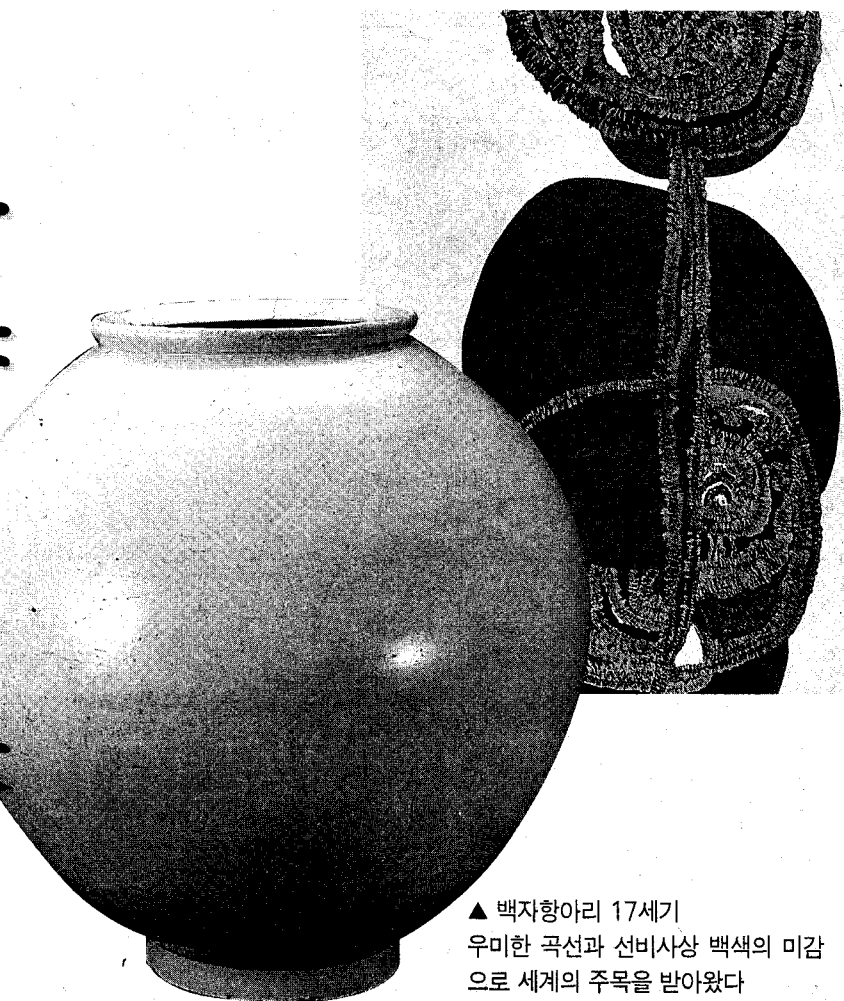


□ 동양 · 한국미의 극치 - 곡선의 미학

□ 선으로 본 동 · 서양의 예술 철학

동양미(美) 속에 담긴 자연친화



▲ 백자항아리 17세기
우미한 곡선과 선비사상 백색의 미감
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병식
(미술학부 교수)

야나기 무네요시는 남산에 올라서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집들의 지붕에 나타나는 한없는 곡선의 물결이라고 했다. 멀리 바라다 보이는 인왕산과 북한산 자락에서 초가집과 기와집의 곡선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풍경이 그의 표현처럼 굽이굽이 물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한국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손꼽히는 요소들 중 곡선은 빼놓을 수 없으며, 중요한 유산인 건축, 공예, 회화, 조각 등의 전반에 걸쳐서 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용마루로부터 내림마루, 망새, 포벽을 거쳐 귀마루에 이르러서 추녀와 사래부터 하늘로 받쳐 올라간 바래기의 번양전기(鸞仰轉起)는 대표적인 비연(飛然)의 미감으로 손꼽힌다.

하늘을 향해 마치 학이 나래를 펴듯 늘씬하게 미끄러져간 곡선의 아름다움, 고유섬은 지토(地土)에 깊이 반착해 반석같이 서 있으면서 큰 맛을 자아내다고도 말했다. 이는 중국의 건축에서나 일본의 치밀하게 다듬어지고 계산된 곡선의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색이다.

또한 청자 · 백자 · 분청사기 등

에서 흙백 매료되는 곡선의 미감은 자연 그대로의 맵시를 고도로 응축하여 머금은 풍만함과 우미함을 세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초가집에서 느껴지는 완만한 산세 그대로의 선율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일체감은 버선, 한복, 각종 공예품 등에서 맛볼 수 있는 아름다움과도 모두 상통된다.

특히 민영익의 작품에서 그 백미를 볼 수 있듯이 수목화 특유

곡선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의 순진 무구한 심성과 자연에 가까이 하고 자연과 함께 하려는 고도의 관념적 추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의 먹을 머금은 모필로 처나간 묵난(墨爛)의 곡선미는 바로 처마와 도자기에서 볼 수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직결되는 사의적 미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미감에서 곡선이 그토록 중요시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선조들의 순진무구한 심성과 자연에 가까이 하고 자연과

함께 하려는 고도의 관념적 추상화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완만한 산세로 이루어진 자연환경의 영향은 대들보와 기둥을 소나무의 곡선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의식으로까지 연결하였고 우리기라, 특히 청이나 약기의 운율로, 춤사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는 고대부터 선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인다. 물론 회화처럼 우미한 곡선을 추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1:1.618, 즉 황금분할과 같이 물질과 물질의 비례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다수의 신전, 중 · 고대 시대의 교회건축 첨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곡선보다는 직선위주의 분할과 이상화를 많이 추구했다. 서양미술에서 대규모 건축과 조각이 성행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는 그들이 사물을 해석하는 기초개념을 입체적 물질로부터 접근하려는 의식을 전통적으로 고수함으로써, 극도의 사실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면과 면의 분할을 시도하게 되었다. 동양과 한국의 경우는 노장(老莊)과 불교의 사상적 기반 이후 위진현학을 거치면서 고도의 추상적 관념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입체형태의 완전한 '선의 미감'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문득 서울도심의 한켠을 지나

다가 곡선으로 된 건축물을 발견하고 박물관에 가야 만나게 되는 도자기의 곡선을 마주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발길을 멈추고 음미해볼게 되는 것은 귀소본능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곡선으로 설계해 59년에 완성한 구겐하임미술관을 보고 지금까지 찬탄을 금치 못했던 서구인들의 의식에서도 그들이 얼마만큼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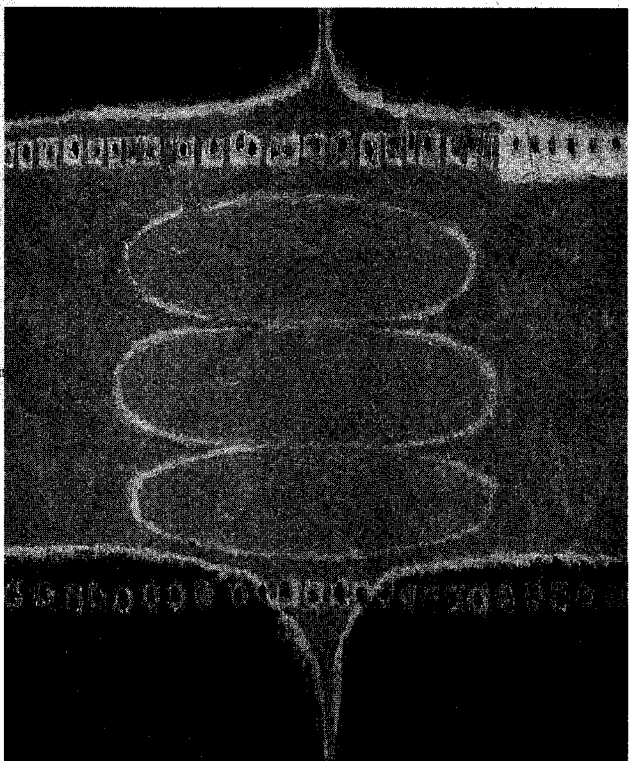
동양과 한국의 곡선미는 서양인들이 맛보지 못했던 바로 그 고도의 형이상학적 차원을 유희해왔던 가장 정제적인 유산의 한 요소인 것이다

선에 길들여져 있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선(線)은 점(點)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형태는 그로부터 형성된 조합체인 것이다. 동양과 한국의 곡선미는 서양인들이 맛보지 못했던 바로 그 고도의 형이상학적 차원을 유희해왔던 가장 정제적인 유산의 한 요소인 것이다.

◀ 박래현의 '작품18'
한국의 도자기에서 미적 곡선이 추상화된 현대적 작품

▼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으로 우리의 곡선 우리의 색을 내놓고 있음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선에 내포된 관념 · 사상의 차이

박성현
(철학과 강사)

미술을 전공하거나 예술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선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선이 점, 면과 함께 기하학의 3대 요소 중 하나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잠시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사물들의 형태가 선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걸으면서 팔을 앞뒤로 흔드는 것을 의식하지 않듯이, 일상을 이루는 모든 선들에 대해 무감각했을 뿐이다.

'동양의 미'하면 흔히들 '선과 여백의 미'를 얘기하고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선의미를 떠올린다. 전자의 특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산수화. 중심의 수목화라면, 후자의 모습은 하늘을 이고 서있는 고궁의 기와지붕, 사뭇한 버선발과 소매로 소리없이 허공을 가르는 절제된 춤동작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동양의 산수화가 서양의 풍경화와 구별되는 큰 차이로 보통 그것의 관념성을 꼽는데, 풍경화가 자연을 보이는 실물 그대로 묘사하는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다면, 산수화는 자연의 너그러운 성정을 배워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과 인간의 내면적 합일을 꾀하려는 다분히 도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산수화의 산과 물은 단순히 가시적 실재로서의 산과 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구하는 데 주력한 소크라테스적 영향력이 느껴진다. 똑같이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고 논하였어도 그것의 전개는 당대의 사회 · 역사적 조건 아래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듯이, 동 · 서양의 예술문화 안에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예로, 전통적인 서양회화가 색, 빛, 형에 주력하였다면 동양에서는 점과, 점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선만으로도 독특한



▲ 칸딘스키의 '죽음'
하고 개성있는 예술의 영역(사군자, 서예)을 창조하였다. 획에 나타난 다양한 선의 율동과 역동성, 생명력을 보라. 점과 선은 그냥 단순한 점과 선이 아니다. 하나의 선은 만물의 형상을 이루는 근본이고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인간은 마음의 평정과 내면적 성찰에 이르게 된다.

서양예술이 대상의 물질성을 보다 완전하게 구현함으로써 미를 추구하고 그 대상에 대한 인간의 직접적인 시각과 감성을 표현하였다면, 동양예술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선, 거다가 쉬어가는 듯한 흐름, 여백의 무로부터 유를 표현하고 공을 통해 충만함을 표현하는 이른바 '미완의 미', '미완성의 완성'으로 불려온다.

그러나 동 · 서양의 예술문화와 그것에 반영된 사상적 차이를 절대화 해서는 안된다. 같은 동양문화권이라 해도 중국과 한국의 기와지붕은 서로 다른 곡선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그림은 서로 다른 선을 사용한다. 같은 중국내에서도 남종문인화가 수묵화를 통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심상의 표현에 치중한 반면, 북종화원화의 직업적 화가들은 채색화를 위주로 한, 보다 사실적인 묘사에 주력하였다. 같은 동양이라도 수묵화와 민화는 판이한 것이며, 반면 20세기 초 칸딘스키 등 서구의 추상화가들이 선을 통해 정신과 의식의 내면을 관념적으로 묘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묵화의 형이상학적 성향과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 · 서양의 문화가 흔히 왜곡되듯이 본래부터 다른 두가지 대립구조인 양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특정한 문화와 사상은 시 · 공간적인 제약 즉 역사성과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그것들의 차이(특수성)는 공통성(보편성)과 통일되어 있다.



▲ 노수현의 '추상폭포'
근원적 생명력으로, 신성한 인격체적 존재이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로서 본받아야 하는 것, 그 안에 완전히 몰아의 경지로 녹아들어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노자가 사람들에게 "물같이 되라"고 가르친 것은 물이 생명의 근원으로 도에 가까운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았지만 그것은 관념성이 배제된 물질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들에 표현된 인체미의 균형, 조화, 비례 속에는 자연철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본 프로타고라스나 인간의 문제를 탐

창립 10주년 기념 세일

레이저프린터 26만원

〈피카소100-300대, 피카소200-50대 한정〉

높은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레이저프린터. 경희전자에서 가격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혁신적 가격으로 구입하십시오.

1. 1200DPI 해상도

REAL 600DPI 엔진을 사용한 프린터지만 실제출력은 1200DPI급으로 인쇄물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QET) 일반문서는 물론 도표, 사진, 그림 등도 OK!

3. 세기 최고 가는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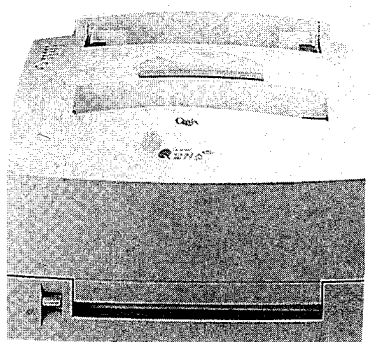
피카소 100/200은 세계최고의 기능과 품질을 자랑하는 캐논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잔고장이 전혀 없으며 HP LASER와 동일한 토너 및 소모품을 사용합니다.

2. 편리한 기능

WINDOWS 95의 최대장점인 P&P(PLUG & PL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ECP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A/S보장

구입 후 1년간 무상서비스를 보장하며 만약, 설치시 문제가 있으면 100% 1대 1로 교환해 드립니다.



피카소 100/200
₩260,000/ ₩295,000



문의전화 : (02)703-1427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1-30 전자상가 6동 2117호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희전자 컴퓨터 대중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월 가 犬 세 일

LG 아트젯 GIP-6000

600DPI급/A4/4PPM

₩ 363,000 ₩ 220,000

★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수상 S/W ★

다비치 VER.1

포스터, 명함, 엽서, 사진스티커, 달력등을 손쉽게
도안할 수 있는 컴퓨터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

₩ 49,500 ₩ 35,000

구매방법

아래구좌로 입금하신 후 경희전자로 구매신청을 하시면 3일 이내에 도착시켜 드립니다.

서울은행 23707-0083206 예금주 강신광

외환은행 209-22-00356

국민은행 015-01-0504-807

농협 011-17-001321

◆ 전문형 586, X86 Desk Top 조립 및 삼보, 삼성 제품도 취급합니다.